

전남 동부권

日 관광객 남도 뱃길여행 '찝'

광양간 카페리 이용객 증가...2~5월 1000여명 예약

지난달 23일 광양항에서 시모노세키(下關)항과 모지(門司)항을 잇는 한일간 카페리 뱃길이 열리면서 이 항로에 취항하는 '광양비츠호'를 이용해 광양을 찾는 일본 관광객들이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출 출발해 토요일 아침 광양에 도착해 광양시 등을 관광하고 일요일 저녁 선박으로 돌아가는 '1박3일' 상품에 각 80명씩 160명이 일본 요미우리 여행사에서 여행객 모집이 됐다. 또한 4월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황금연휴에는 일본 JTB, HIS, 요미우리 여행사 등의 모객으로 3종류의 상품에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800여명의 일본인이 광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항로 개설 초창기여서 카페리 이용객이 많지 않지만 여러 여건으로 봐 이용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로 개설 초기만 해도 광양비츠호가 두 항구를 1주일에 3회 왕복하는데도, 1주일간 광양을 찾는 일본 관광객은 십수 명에 불과, 일부에서는 이용객 부족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이어 2번째로 열린 국제 카페리 항로가 닫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앞으로 꾸준히 일본 관광객이 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지방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 육성 ▲쇼핑센터 건립 ▲사찰 등 관광지의 입장료 감면 등 관광객 유인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여수시와 한국철도공사 15일 카페리 관광 활성화 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양시는 철도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편의 제공 및 연계교통 운행 등 철도 업무에 적극 지원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18일과 25일에는 금양~日 시모노세키·모지항 간을 운행하는 광양비츠호.



광양~日 시모노세키·모지항 간을 운행하는 광양비츠호.

“섬진강변 봄빛 속을 달려요”

곡성군 19일 '청정고을 자전거 대행진'

섬진강변을 따라 달리는 자전거대회가 곡성에서 열린다.

곡성군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자전거 동호인과 공무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정고을 에너지절약 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 코스는 고달면 청소년아영장에서 출발해 섬진강변 길을 따라 뱅덕어뎌 고개와 도계비 동상, 호곡 나무터를 지나 고달마을 앞에서 반환점을 찍고 돌아오는 왕복 14km 구간으로 3시간 이내가 소요된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실적' 중앙합동평가 결과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3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범국민적인 자전거가 열풍의 선두가 되어 이번 대회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이번 대회를 비롯해 ▲5월 가정의 달 자전거 행진 ▲6월 다문화가정 자전거 행진 ▲7월 섬진강문화학



교 자전거 행진 ▲9월 석곡코스모스 MTB 친목단체전 등 다양한 자전거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 자전거 동호인만이 아닌 생활체육으로 발전시켜 청정고을 이미지를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상업 보존구역내 SSM진출 금지”

순천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추진

대형 유통기업들의 SSM(Super Super market) 진출에 따라 지역상권의 붕괴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전통 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직선거리 500m 내에는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예정이 다.

소외이웃 가정에 '화재 감지기'

여수소방서, 7500세대 내년말까지 보급

여수소방서(서장 음두호)는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7500세대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내년 하반기까지 보급한다.

관리를 위해 지난 12일 여수시 노인복지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는 재난에 취약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전격적인 맞춤형 공헌사업으로 여수 소방서가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또 감지기 보급 후 지속적인 유지·

또한 전통상업지역의 지정·변경과 대·중소유통업간 상생 발전 촉진 및 지역 유통 산업 발전의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음달 7일까지 경제통상과(749-3355)로 제출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수도권-지방 정보교류

곡성 서울사무소 개소

곡성군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곡성군 서울사무소'를 개설,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중앙부처 국비사업 확보와 국회 예산확보, 투자유치를 지원하며, 중앙부처 정책방향 사업추진계획 등 정보수집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 수도권 향우 등을 활용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지역 홍보 등을 도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섭 초대소장은 "흘러가는 강물의 세기를 알기 위해서는 역류해업을 처분하는 자세로 군정발전에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발굴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향토기업 잇따라 도산

백화점·건설사 등 대기업 진출에 경영난

최근 계속된 불경기로 전북 백화점과 서점, 건설사 등 향토기업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15일 전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내 증경 건설업체와 유통업체, 금융업체, 서점 등이 경영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거나 서울 등 수도권 기업에 팔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들어서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건설업체 사정은 거의 몰락 지경에 빠졌다. 국내 증경 건설업체인 성원건설과 엘드건설 역시 각각 2008년과 작년엔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 이어 한때 잘나갔던 광진건설마저도 작년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처리됐다.

여기에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최근 대형 할인점과 SSM의 무차별적인 진출과 확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형 슈퍼마켓들은 교묘한 형태로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어 지역경제의 수도권 의존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취재본부=김승철기자 k0765@

주민도 모르는 '공항지구 도시계획'

“고시공고 슬쩍” 반발...부안군 “사전에 알릴 필요 없어”

부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지역주민이 '밀실행정이다'며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다.

15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 열람 공고'를 통해 '공항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주민 열람을 고시·공고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해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간폐를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641번지 일원 면적 36만4600㎡(11만484평)에 대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교통처리계획 등 부안군 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의견을 내야 할 격포리 공항마을 주민과 땅 소유주들은 군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부안군 건설도시과 정일근 도시계획계장은 "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는 없다"며 "관련법에 따라 전북 지방지 2곳과 부안군 홈페이지, 변산면사무소에 지구단위계획안을 고시·공고를 했으므로 관계 주민은 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공항부락 신상길 이장은 "군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도 없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진행한 것은 일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 배부르게 하는 밀실행정이다"며 "정작 당사자인 주민은 계획 수립은 물론 계획수립 안을 고시한 것조차 모

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신 이장은 "군 홈페이지 어디에 공고가 있는지 어려워 찾을 수도 없고, 면사무소와 신문 공고를 볼 기회조차 없었다"며 "해당 지역 이장조차 모르게 밀실행정을 하는 부안군에 대해 주민들과 합심해서 반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리에 3200㎡(970평)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천모(여·52)씨는 "해당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도 지구단위계획을 모르고 있는데 전주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지금 당장이라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군 계획안대로 확정된다면 7억여원 이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법정투쟁이라도 벌여서 군 계획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008년 용역공고를 통해 민간기업과 군에서 협의해 현재의 계획안을 결정했고, 지난 7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안을 고시·공고해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 멜론 옮겨심기 작업 한창

남원시 금지면과 주생·송동면 등 평야부 멜론 수출 전문생산단지에서는 요즘 감추어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멜론 정식(옮겨심기)작업이 한창이다. 남원 멜론은 현재 43ha에서 연간 6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kwangju.co.kr

'심리스 파이프' 국산화 첫 삽

일진제강, 임실에 50만t 규모 공장 기공

일진제강이 임실에 연간 50만t 규모의 '심리스 파이프'(Seamless Pipe·이음매 없는 강관) 생산공장을 짓는다.

일진그룹은 지난 14일 임실농공단지에서 하진구 회장과 일진제강 정희원 대표이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김

완목 임실군수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기공식을 열고 전량 수입품에 의존하는 심리스 파이프의 국산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

일진은 우선 3000억원을 들여 농공단지내 13만3000㎡(4만평)에 연간 50만t 규모의 심리스 파이프 생산과

인을 구축한 뒤 2012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심리스 파이프는 탄소강과 합금강의 구성물도 열간 가공 방식을 활용해 만드는 이음매 없는 강관이며 섬세 1200~1만3000도에서 만들어진다.

지난해 전 세계 심리스 파이프 시장규모는 3800만t, 금액으로는 70조 원 정도이다. 국내 소비량은 50만t에 달하지만 국내에는 이를 양산하는 업체가 없어 그동안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전량 수입했다.

/전북취재본부=서은종기자 seo@

단 신

군산시-페이퍼 코리아 공장이전 MOU

군산시 동부권 도심에 위치한 페이퍼 코리아(주) 공장이 옮겨진다. 군산시와 페이퍼 코리아(주)는 지난 14일 공장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는 상호협력 아래 기업의 합리적 이전과 공장부지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정읍시 시·군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

정읍시가 지난 14일 전북도 주관의 2010년도 시·군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로 서면 및 확인평가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2010년도 부과목표액 529억원의 109.1%인 578억을 부과해 초과 달성했고, 위탁소 회원가입률에서 9.11%로 전북도 사무 1위를 차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제소방서 업소에 피난안내도 비치 계도활동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관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기한내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 132개소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나섰다. 모든 다중 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주출입구와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영화상영관이 등 영상기기가 설치된 업소는 추가로 피난안내 영상물(1분 내외)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익산시 '동화로 엮은 우리 고장 익산' 펴내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의 대표 설화와 인물을 소재로 한 동화책 '동화로 엮은 우리 고장 익산'(총 10권)을 펴냈다.

의 준량이 내려온 익산 ▲사이좋은 오누이의 탑 쌓기 내기 ▲최고의 솜씨를 가진 석곡 아사달 ▲할라 마을의 세 부자 이야기 등 다양한 설화와 지역인물을 담고 있다.

익산문화재단이 기획·제작을 맡은 동화책은 ▲사랑으로 꿈을 이룬 서동과 선화공주 ▲고조선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